



다시 일상으로... 마스크 쓴 귀경행렬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4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이 귀경인파로 붐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차분했던 추석... 코로나19 안정세

연휴 기간 지역 감염 광주 0·전남 1건 ... '조용한 전파' 가능성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해제

광주와 전남도가 코로나19 소강세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집합금지(운영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완화하기로 했다. 광주는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남은 지역사회 감염이 1건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2면> 시·도는 다만 추석 연휴 전남 일부 관광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고 귀성·귀경객 등 대규모 인구 이동 속에 코로나19의 '조

용한 전파'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은 최고 수준의 방역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도민에게도 힘들겠지만 당분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4일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추석 연휴 5일 동안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현 방역시스템으로 코로나19 상황 관리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5일부터 유

흥시설 5종을 집합제한 대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5일부터 24시간 영입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오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지만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집합제한시설의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다.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했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목욕탕·사우나의 시간제한을 5일부터 완화한다. 또, 10인 이상 집합금지였던 실내 집단운동도 50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원 제한을 완화했다. 실별 3인 이하로 입장을 제한했던 멀티방·DVD방은 인원 제한을 풀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중단, 노인요양시설 면회 금지, 스포츠 경기 무관중 진행, 공공시설의 제한적 운영 등

조치도 정부 방침에 따라 11일까지 유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1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광주에서는 지난 3일 인도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1명이 확진됐으나 추석 연휴 5일간 지역 감염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이후 18일 동안 지역 감염 확진자는 지난달 22일 2명, 29일 3명에 그쳤다.

이 시장은 "추석 연휴 이동에 따른 지역 감염 확산 여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외출·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 시민들 덕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5일부터 광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완화한다. 전남에선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20일만에 순천에서 지역사회 감염자 1명이 발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알립니다
문화예술 매거진 '예향'
통권 300호 발행합니다



창간호(1984년 10월호)



복간호(2013년 4월호)



300호(2020년 10월호)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월간 문화예술잡지 '예향'이 10월호 통권(通卷) 300호를 맞습니다. <관련기사 22면> 월간 '예향'은 5·18 민주화운동의 참혹한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1984년 10월, '전라도 사람들의 멧과 얼을 지켜나갈 전라도 사람들의 잡지'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탄생했습니다. 창간호 이후 월간 '예향'은 시대정신과 남도의 전통 문화, 현장의 예술인들을 다각적으로 다뤄 독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등장에 따른 출판문화의 변화와 자본의 논리 앞에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IMF의 경제 한파가 휩쓸고

간 2002년 2월, 부득이하게 잠정 발행 중단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간 '예향'은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휴간한지 11년 2개월 만인 2013년 4월호(210호)로 복간하며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월 만 들어지는 잡지 한권 한권은 남도문화 예술의 소중한 아카이브(Archive)이자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월간 '예향'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가뭄에 도마르지 않는 샘이 깊은 물처럼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과 격려 바랍니다.

光州日報社

광주시장·광주 국회의원 8명 시·도 행정통합 등 현안 논의

전남과 상생 협력키로

광주시와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광주·전남 행정 통합 등 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은 지난 3일 오후 광주 전동문화관에서 긴급담화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가 이뤄진 현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비롯한 자치구 간 경계 조정,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비 확보, 민간공항 통합 및

군 공항 이전 등이다.

이 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전남 행정 통합과 관련, 지역의 미래 발전과 시·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진정성을 갖고 차분하게 전남도와 협의하기로 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광주·전남 상생 정신과 동반 성장을 위해 전남과 큰 틀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와 지역 의원들은 전남도 및 전남 지역 의원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지역 국회의원이 전하는 추석 민심 ▶3면

끊이지 않는 경찰 비위 ▶6면

KIA 타이거즈 멀어지는 5위 ▶18면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2weeks
고함양 고강도 레티놀인 분기질
효과 주름抚음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 40~59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9.16~10.17 지양) (피부임상연구센터) |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